

제7차 핵심정책 릴레이 세미나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일 시 2023년 9월 22일(금) 14:00

장 소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① (지역현안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충남 도정을 선도할 핵심 이슈 및 현안에 대한 릴레이 정책세미나 개최, 언론보도 등 공론화 추진, 사전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설계방향 세팅
- ② (정부 및 도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충남도의 의제설정 및 지역 현안 공론화 왜곡이 우려되는 바, 실태 파악을 통해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당위성을 확인하고 KBS의 핵심 의제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개요

- 주 제 :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 일 시 : 2023년 9월 22일(금) 14:00~16:0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3

행사 일정

구분		세부내용	
14:00~14:05	5	개회식 및 참석자 소개	사회 : 이상준 (기획조정팀장)
14:05~14:10	5	개회사	유 동 훈 (충남연구원 원장)
14:10~14:15	5	축사	김 명 숙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14:15~14:45	30	[발제]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당위성 및 유치 시 기대효과	양 선 희 (대전대학교 교수)
14:45~15:45	60	[종합 토론] · 좌 장 : 유동훈 원장 · 토론자 -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 -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심미선 교수 -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송종현 교수 - 충남연구원 출판홍보팀 정봉희 팀장	
15:45~16:00	1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발제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당위성 및 유치 시 기대효과

양선희 (대전대학교 교수)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당위성 및 유치 시 기대효과



양선희 | 대전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목 차

- 01 충남을 둘러싼 방송환경
- 02 지역과 지역방송 그리고 뉴스
- 03 KBS대전의 충남보도실태 및 이해당사자 인식과 평가
- 04 충남의 방송환경 개선 방향
- 05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 02 지역과 지역방송 그리고 뉴스

- 03 KBS대전의 충남보도실태 및 이해당사자 인식과 평가

- ## 04 충남의 방송환경 개선 방향

- 05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01

충남을 둘러싼 방송환경

01

충남을 둘러싼 방송환경

부재, 소외, 불평등

• 전국 유일의 지역방송 부재 광역지자체

수도권에 해당하는 인천, 경기를 제외하고 지역방송이 없는 곳은 충남이 유일함

• 지역정보의 빈곤, 소외와 불평등

충남도민은 지역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지역에 밀착된 보도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역의 이슈와 현안이 공론화되지 못해 바람직한 여론형성이나 문제해결이 요원해지는 등 지역방송 부재로 인한 각종 소외와 불평등에 처해 있음



출처: 홍주신문(2020.12.3)

충남의 방송 수요 vs KBS의 공급 부재

• 충남도민은 지상파방송 및 뉴스 수요가 높고 주 시청채널은 KBS(미디어미래연구소, 2014)

- 지역 관련 정보 습득 : 지상파 > 인터넷 > 신문 > 케이블방송 순
- 지상파 프로그램 중 뉴스를 가장 많이 시청(39.9%)
- 주 시청채널은 KBS-2TV > KBS-1TV > 대전MBC > TJB대전방송 순

• 충남의 인구는 2023년 6월 현재 213만 명으로 대전 145만 명보다 많으며,
2019년 약 270억 원의 TV수신료 납부

-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330만 명), 경남(326만 명), 경북(258만 명), 대구(236만 명) 다음으로 많음

충남의 방송 수요 vs KBS의 공급 부재

- 미디어 및 뉴스 이용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텔레비전 이용률이 높아(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평균연령이 높은 충남(45.6세)의 텔레비전 뉴스 수요는 높음
- 대전 43.2세로 충남보다 낮고, 세종은 38.4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음



연령대별 미디어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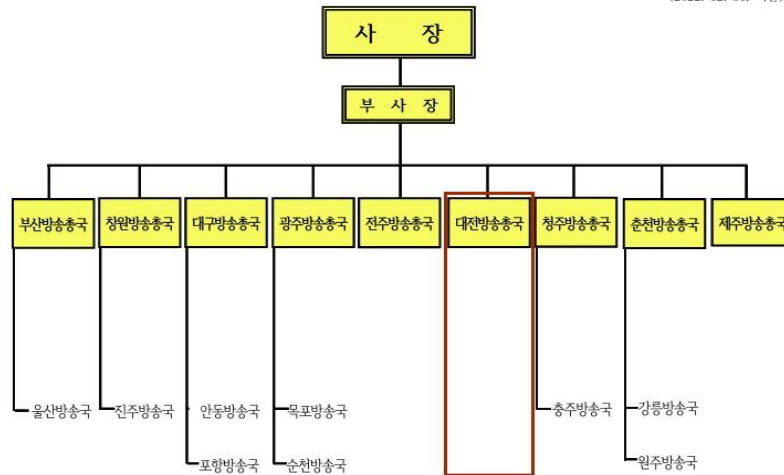


연령대별 미디어 뉴스 이용률

충남의 방송 수요 vs KBS의 공급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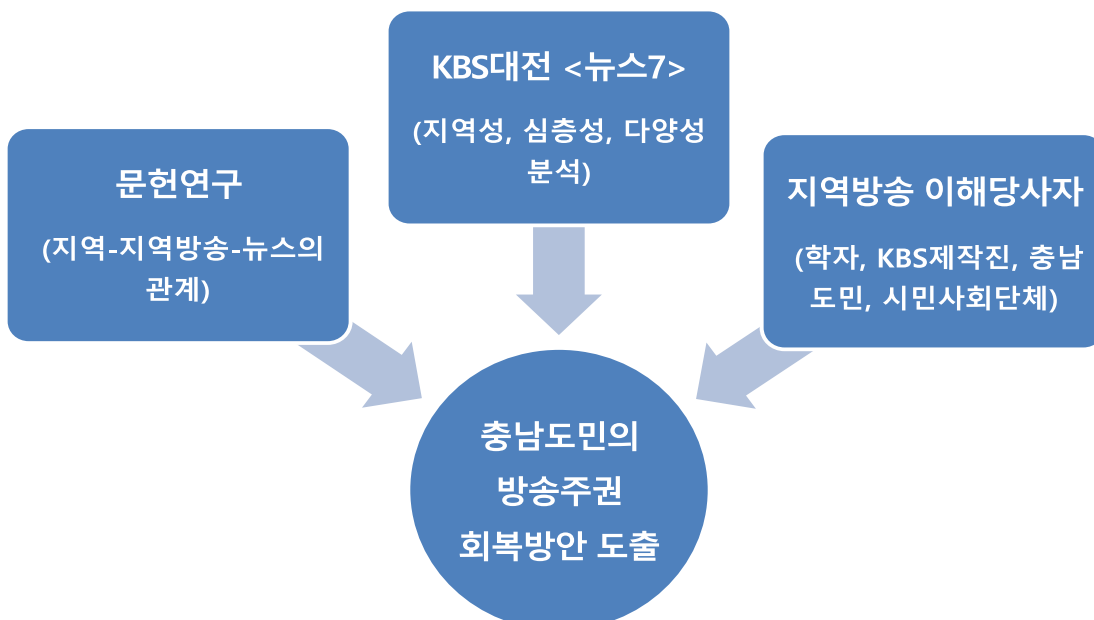
- KBS는 수도권 외 5개 광역시와 7개 도에 총국 또는 지역국을 1~3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에는 단 1개의 지역방송도 존재하지 않는 기형적 구조

(2022. 12. 31. 기준)



출처: KBS 홈페이지

충남의 방송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분석



02

지역과 지역방송 그리고 뉴스

02

지역과 지역방송 그리고 뉴스

지역과 지역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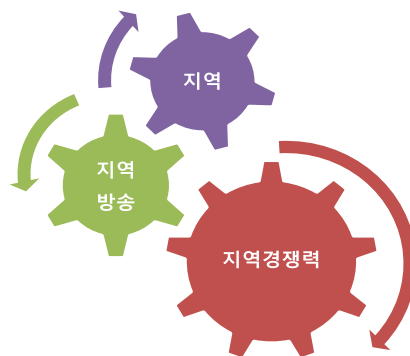
• 지역방송은 지역의 핵심 정보원이자 공공재

지역방송은 지역의 핵심 정보원으로서 지역민과 지역사회를 이어주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제설정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지역과 지역방송

- 지역방송과 지역은 마차를 움직이는 한 쌍의 수레바퀴처럼 긴밀한 관계로 간주됨
(양선희, 2021).

‘지역방송의 경쟁력’ 제고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유승관, 2018), ‘지역방송의 붕괴’는 곧 ‘지역의 붕괴’(최홍림·배지양·황성욱, 2016)로 인식됨



지역과 지역방송

• 방송법 제6조 제6항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규정함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지역방송의 책무)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방송의 책무는 한마디로 ‘지역성’ 구현이며, 이는 공익적 가치로 평가됨

지역과 지역방송, KBS

-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를 표방하는 KBS의 지역성 추구는 공영성 확보 차원에서 핵심적
- 대표적 공영방송을 자임하는 KBS가 지역민을 위해 공익적이고 지역 밀착적인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한선, 2020)
- 체제나 법제상으로 국가기간방송인 KBS에 부여된, 지역성 포함 공적 의무의 수위가 다른 방송사보다 훨씬 높음(김재영·양선희, 2016)

지역방송 뉴스의 의미와 가치

- 지역방송 뉴스는 일종의 '보편적 정보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지역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공재 역할 수행(최용준·최윤규, 2015)
- 지역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은 지역 시청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콘텐츠로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 현실로 구성함으로써 지역민의 이해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주정민·박복길, 2007)

지역방송 뉴스의 의미와 가치

- 지역방송 관련 다수 연구들은 지역방송 뉴스가 전국 단위의 방송사에 비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역방송 뉴스의 경쟁력은 지역방송 경쟁력의 핵심적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지역 시청자들의 주시청 프로그램은 뉴스로, 만족도 역시 뉴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김진영·이상훈·한태학, 2008)
- 충남도민은 지역언론의 역할로 '지역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매체 기능'을 가장 우위에 두고 있음을 확인(양선희, 2014)

지역방송 뉴스의 의미와 가치

- 지역방송 저널리즘의 가치는 지역의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 환경을 감시하면서 지역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게 하는데 있음(김연식, 2013)
- 지역 현장에 밀착, 지역의 이슈와 담론을 양질의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은 지상파 고유의 역할(금준경, 2019)
- 지역민의 지역 지상파 시청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참여도를 높임(양혜승, 2014)
- 지역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 시청자가 지역방송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지역 정치참여 의사가 높음(최진호·이정기, 2022)

지역방송 뉴스와 충남

- 충남은 전국의 광역시도 중 방송산업이 가장 낙후한 지역 (장호순, 2015)
 - 충남도민의 수신료 부담에 비해 방송을 통해 얻는 서비스 크게 미흡
 - TV 지상파방송의 부재, 충남에 비해 대전 관련 내용 비중 압도적

지역방송 뉴스와 충남

- ‘서울’과 ‘대전’이라는 각기 다른 규모의 ‘중앙’으로부터 주변화, 이중소외 (김재영·양선희, 2016)
 - KBS대전의 저녁메인뉴스에서 충남 뉴스 31.3%로 대전 뉴스 58.3%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충남 뉴스 중 사건/사고/범죄 뉴스가 26.7%로 가장 많았고, 대전의 2배 수준

지역방송 뉴스와 충남

- KBS가 지역방송 저널리즘의 기능 회복과 지역성 제고를 위해 편성과 제작권을 지역방송에 일임한 <뉴스7> 지역화 이후에도 충남 관련 보도는 오히려 감소함(양선희, 2021)
- 충남 뉴스 13.3%, 대전 뉴스 32.3%로 충남의 소외와 주변화 심화
- 충남 뉴스 중 사건/사고/범죄, 환경/공해 뉴스가 20.7%로 가장 많았음
- 뉴스 취재인력과 시스템 없는 제도의 문제점 노출

03

KBS대전의 뉴스보도실태 및 이해당사자 인식과 평가

KBS대전의 충남보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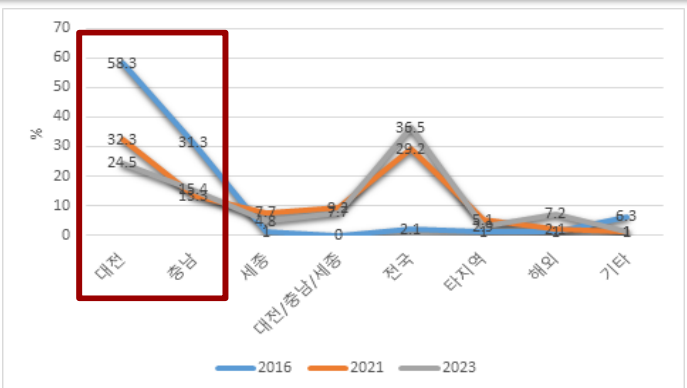
• 분석대상 : KBS의 <뉴스7>

2023. 3. 1 ~ 2023. 5. 31 중 요일별 편성이 없도록 구성주 방식으로 총 12일

• 선정배경 : KBS의 <뉴스7> 지역화 단행

- KBS가 지역방송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차원에서 저녁뉴스 시간대 40분 전체의 편성과 제작권을 지역방송에 위임
- KBS의 <뉴스7> 지역화 이후 KBS대전이 재현하는 '지역' 탐색
: 양적, 질적 주변화와 소외를 보였던 충남에 초점

KBS대전의 충남보도실태 : 지역성



KBS대전 <뉴스7>의 취재 영역별 기사 빈도

구분	취재 영역								합계
	대전	충남	세종	대전/충남/세종	전국	타지역	해외	기타	
빈도	51	32	10	16	76	6	15	2	208
%	24.5	15.4	4.8	7.7	36.5	2.9	7.2	1.0	100.0

- 충남 뉴스는 대전에 비해 양적 열세를 보였으며, 2016, 2021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경향

KBS대전의 충남보도실태 : 지역성

KBS대전 <뉴스7>의 충남 시군별 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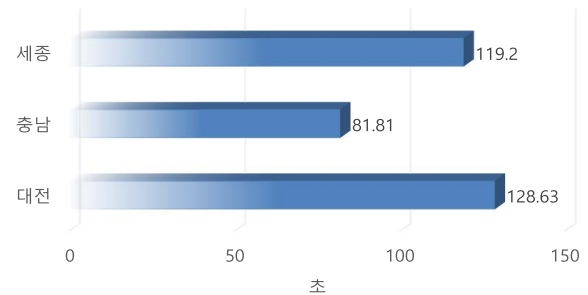
구분	공주	계룡	논산	당진	보령	서산	아산	천안	금산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홍성	충남 전체	기타	합계
빈도	5	0	1	2	4	2	3	8	1	3	0	2	0	0	10	11	1	53
%	9.4	0.0	1.8	3.8	7.5	3.8	5.7	15.1	1.8	5.7	0.0	3.8	0.0	0.0	18.9	20.8	1.8	100.0

- 충남 전체 또는 도청 소재지인 홍성 관련 뉴스 비율이 높아 지역별로 특화된 뉴스보다 행정 아이템 및 행정 아이템 및 관급 뉴스가 많았으며, 계룡, 서천, 청양, 태안 지역에 관한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음

KBS대전의 충남보도실태 : 지역성

- 충남 뉴스는 사건/사고/범죄가 6건(18.8%) > 행정기관/지자체 5건(15.6%) 순
- 충남 뉴스 중 사건/사고/범죄의 비율은 2016년 26.7%, 2021년 20.7% 등 매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대전에 비해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소수의 취재인력이 담당하면서 출입처에 의존해 뉴스를 생산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지속적이고, 고착화된 충남의 높은 사건/사고/범죄 뉴스 비율은 충남의 부정적 이미지 초래

KBS대전의 충남보도실태 : 심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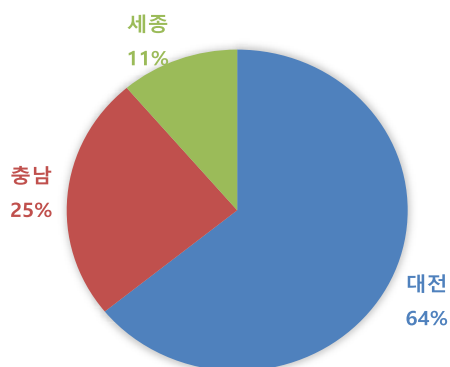


KBS대전 <뉴스7>의 취재 영역별 평균 뉴스 시간량

취재 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
대전	53	128.63	99.19	24	510	2.93	.059
충남	32	81.81	53.12	22	236		
세종	10	119.20	88.22	28	324		

KBS대전의 충남보도실태 : 심층성

KBS대전 <뉴스7>의 취재 영역별 평균 뉴스 시간 비율



- 뉴스 빈도와 리포트별 평균 시간의 차이를 뉴스 시간으로 환산하면 더욱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 충남의 배제와 소외를 여실히 드러냄

KBS대전의 충남보도실태 : 심층성

KBS대전 <뉴스7>의 취재 영역별 보도 형식

보도 형식	대전	충남	세종	한계
앵커+영상	16(31.4)	15(46.9)	4(40.0)	35(37.6)
앵커+기자 리포팅(VCR)	17(33.3)	14(43.8)	4(40.0)	35(37.6)
앵커+영상+기자 스튜디오 출연	8(15.7)	3(9.4)	0(0.0)	11(11.8)
앵커+영상+전문가 스튜디오 출연	1(2.0)	0(0.0)	1(10.0)	2(2.2)
앵커+기자 리포팅(VCR)+기자 스튜디오 출연	3(5.9)	0(0.0)	0(0.0)	3(3.2)
기타	6(11.8)	0(0.0)	1(10.0)	7(7.5)
합계	51(100.0)	29(100.0)	10(100.0)	93(100.0)

KBS대전의 충남보도실태 : 심층성

KBS대전 <뉴스7>의 취재 영역별 뉴스 유형

뉴스 유형	대전	충남	세종	한계
스트레이트 기사	38(74.5)	28(87.5)	8(80.0)	74(79.6)
해설 기사	11(21.6)	2(6.3)	1(10.0)	14(15.1)
기획 기사	2(3.9)	2(6.3)	1(10.0)	5(5.4)
합계	51(100.0)	32(100.0)	10(100.0)	93(100.0)

KBS대전의 충남보도실태 : 다양성

KBS대전 <뉴스7>의 취재 영역별 사운드바이트 수

취재 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대전	51	1.43	1.43	.31	.74
충남	32	1.28	1.28		
세종	10	1.10	1.10		

KBS대전의 충남보도실태 : 다양성

KBS대전 <뉴스7>의 취재 영역별 취재원 수

취재 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대전	51	2.43	1.300	1.96	.15
충남	32	1.91	1.088		
세종	10	2.00	1.247		

KBS대전의 충남보도실태 : 다양성

KBS대전 <뉴스7>의 취재 영역별 취재원 수/유형

취재 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대전	51	2.43	1.300	1.96	.15
충남	32	1.91	1.088		
세종	10	2.00	1.247		

취재원 유형	대전	충남	세종	합계
정부/사법/공공기관	22(17.6)	15(24.6)	2(10.0)	39(18.9)
정치인	4(3.2)	1(1.6)	4(20.0)	9(4.4)
경제인	13(10.4)	1(1.6)	0(0.0)	14(6.8)
전문가	16(12.8)	1(1.6)	2(10.0)	19(9.3)
시민단체/이익집단	8(6.4)	4(6.6)	1(5.0)	13(6.3)
유명인	2(1.6)	0(0.0)	1(5.0)	3(1.5)
일반시민/개인	19(15.2)	17(27.9)	0(0.0)	36(17.5)
자료/익명/불분명	41(32.8)	22(36.1)	10(50.0)	73(35.4)
합계	125(100.0)	61(100.0)	20(100.0)	206(100.0)

지역방송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평가

- 분석대상 : 학계 지역방송전문가, KBS 뉴스제작진, 충남도민, 시민사회단체 등 14명
- 분석방법 : 심층인터뷰(대면 중심, 서면/온라인 병행)

지역방송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평가

1.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지역방송 뉴스의 의미와 가치

• 의제설정 및 여론형성 기능

-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포털이나 유튜브는 지역뉴스의 비중이 매우 낮음
따라서 지역의 의제설정이나 여론형성 측면에서 지역방송의 뉴스는 독보적이며,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함

지역뉴스의 경우 포털이나 유튜브, 종편에서 다루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지상파 뉴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뉴스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유지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자A)

지역방송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평가

1.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지역방송 뉴스의 의미와 가치

• 신뢰성: 여전히 유효한 차별성이자 강점

- 텔레비전 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2022)의 조사 결과 뉴스 미디어 유형별 신뢰도에서 5점 만점에 3.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종이신문(3.36)과 포털(3.36)보다도 우위

미디어 환경변화로 지상파방송 뉴스의 위상과 역할이 상당히 변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다져온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는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자 E)

지역방송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평가

1.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지역방송 뉴스의 의미와 가치

• 재난주관방송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SNS 등 미디어 환경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농어촌이 많은 조건이고, 태풍이나 폭우에서 아직은

공영방송 체제의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 대한 공신력이나 의존도가 큼. (시민단체 L)

지역방송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평가

2. KBS의 지역방송에 대한 평가

• KBS <뉴스7>의 지역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포맷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뉴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역화 과정에서 제작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늘려 뉴스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연구자 A)

지역방송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평가

2. KBS의 지역방송 평가

• KBS 대전충국의 뉴스 평가

충남의 뉴스가 단신 등 평면적 보도가 많은 반면 대전의 뉴스 비중이 높은 현상은 지역 내에서의 지역방송 뉴스

불균형과 관급뉴스 중심의 보도 등 거대도시와 행정기관, 출입처와 엘리트 중심의 보도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뉴스는 관급뉴스에서 탈피해 주민 숙원 해결에 치중하고, 주민의 삶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자 C)

소수의 인력이 넓은 지역을 담당하면서 많은 일들을 자세히 다루지 못하고, 사건/사고 위주로 그
리고 충남도민

지역방송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평가

3. 충남의 방송환경 개선 방향



지역방송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평가

3. 충남의 방송환경 개선 방향

대전과 충남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KBS가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으로서 지역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충남 지역에 지역방송국 설립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지역국 설립이

빠른 시간 내에 불가능하다면 충남도청이 소재한 지역에는 충남 뉴스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보도센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자 B)

04

충남의 방송환경 개선 방향

KBS충남 설립의 당위와 현실

• 헌법과 법률의 명시

-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및 행복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여건

- 방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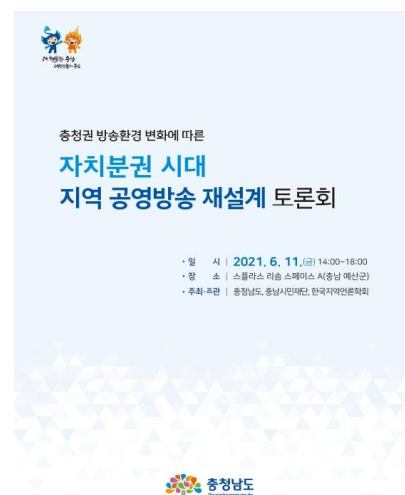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제44조는 공익성의 핵심가치인 지역성 구현에 관해 2항(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5항(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개발, 방송)에서 명시

KBS충남 설립의 당위와 현실

• 지역방송 이해당사자들의 일치된 필요성

- 학계 지역방송전문가, KBS 뉴스제작진, 충남도민, 시민사회단체

•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세미나·토론회, 민관정 활동



KBS충남 설립의 당위와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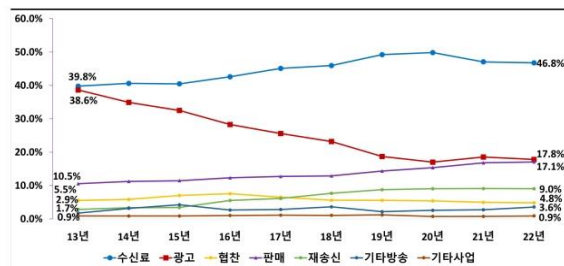
- 13년째 방치되어 있는 내포신도시 KBS 충남충국 부지

- KBS가 2011년 내포신도시에 확보한 20,925m²의 KBS 충남충국 부지는 13년째 방치

-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등 KBS의 자원 감소

- 2022년 KBS 수신료 수입액은 6,933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46.8%

- 2023년 10월 분리징수 시행 시 최대 4천억 원 이상의 수신료 수입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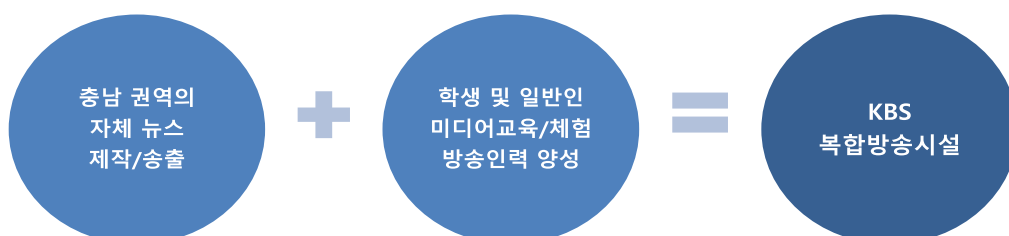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 KBS 복합방송시설

- 충남의 방송환경 개선 방향에서 도출된 '충남도민에게 최적화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조건 확보'를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

- 충남도가 바라는 핵심적 기능인 충남을 권역으로 하는 자체 뉴스 제작 및 송출 기능 외에 지역민과 방송인력 대상 미디어 교육 기능을 결합한 교육특화형 시설



05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05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추진전략

1. 민관정산학 범시민적 캠페인 전개

•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을 위한 민관정산학 범시민적 조직 구성 및 협의체 조직
- 협의체-KBS 업무협약 체결로 복합방송시설 조기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추진전략

1. 민관정산학 범시민적 캠페인 전개

• 서명운동: 공영방송 정상화 프레임

- KBS의 공영방송 철학('KBS의 주권은 시민과 시청자에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과 시청자로 부터 나온다.')에 부합하며,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방안으로써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유
- KBS 압박 수단으로 '공영방송 정상화' 프레임 기반 하에 텔레비전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충남도민 서명운동 전개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추진전략

1. 민관정산학 범시민적 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과의 연대를 통한 여론 형성 및 관리

-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충남도민이 겪는 소외와 주변화 문제를 지역신문과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론화하여 충남 여론형성 및 KBS의 공적 책무 관점에서 전국적 의제로 부상시킴
-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충남도 '직격탄'. 김의철 KBS 사장 "신규 사업 중단"...내포신도시 복합방송 시설 차질 우려 (굿모닝충청, 2023.7.12)
- 김명숙 충남도의원 "충남도민이 KBS의 '불'인가" (충청일보, 2023.6.15.)
- KBS 없는 충남의 설움... "복장이 터진다" (굿모닝충청, 2023.7.16.)
- "KBS 라디오 터널에선 뚝"... "대전으로 방송 출연 자존심 상해"(굿모닝충청, 2023.6.14.)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추진전략

KBS 없는 충남의 설움..."복장이 터진다"

김명숙 충남도의원 "청양지역 폭우 피해 소식은 왜 안 전하냐" 목소리

김명숙 충남도의원 "청양지역 폭우 피해 소식은 왜 안 전하냐" 목소리



지난 14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충청권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충남에 있는 현상에 대해 입입함을 드러하는 목소리가 나와 세심한 관심을 끌고 있다. KBS 로고 및 김명숙 충남도의원 계층 사진 합성/국무총리청-김명숙 기자

김명숙 충남도의원 "충남도민이 KBS의 '봉' 인가"

A 박보경 기자 | © 송민 2023.06.15 18:01

도정질문 통해 충남 KBS 지역방송국 설립문제 지적
"충남, TV 수신료 연간 300여억원 납부...도 단위 유일하게 지역방송국 없어"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추진전략

2. KBS 인재개발원 유치

-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의 현실적 제약으로 지목되는 재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교육특화형 시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기도 수원 소재 KBS 인재개발원을 내포혁신도시 KBS 복합방송시설로 유치

- 충남은 자체 보도기능 확보 및 미디어 교육으로 도민의 방송주권 회복 및 충남도의 정체성 확립
- KBS는 구성원의 교육 및 연수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복합방송시설 재원 마련 및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경영난 완화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추진전략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방송인력 양성 등 교육특화형 시설로 육성

- 학생 및 일반인 미디어 교육 및 체험,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송인력 양성 나아가 전국 규모의 방송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KBS 복합방송시설을 교육특화형 시설로 차별화

4. 충남도의 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

- 유튜브와 OTT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KBS의 재정 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KBS 복합방송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설 설립의 핵심적 걸림돌인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도의 지원 방안 모색 필요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기대효과

1. 시설 개요

- KBS 충남방송국, KBS 미디어센터, KBS 인재개발원 기능이 포함된 복합방송시설
- 규모 : 대지 20,925m²(6,329평), 연면적 17,973.5m²
- 사업비 : 974억(건설비 930억, 장비 및 집기류 44억)
- 직원 30~40명, 연간 교육인원 약 1만 명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기대효과

2. 시설 설립의 직접적 기대효과

• 방송주권 회복 및 지역정체성 확립: KBS의 공영성 강화

- 지역 채널을 확보하면 지역의 뉴스가 중심이 되고 자연스럽게 정보의 유통량이 많아지다보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테고, 지역의 자부심이라든가 지역 아이덴티티 확대 내지 강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L)

• 인구 유입 및 충남도민의 자존감 제고

- 일단은 지역에 인구 유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보령 같은 경우 전라도 지역 방송을 듣는다고... 보령이 충남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기대효과

2. 시설 설립의 직접적 기대효과

• 재난방송의 실효성 제고

- 홍성 산불의 경우 바로 옆에서 산불이 나고 있는데 지역방송 뉴스는 자료가 너무 늦게 오고... 그래서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받으니까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지역방송이 생기면 그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충남도민 J)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체험 등 지역사회 기여

-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이 됐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이나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충남도민 K)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기대효과

3. 지역경제 파급효과

• 방송시설 건설에 따른 효과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투자금액(지출금액)			930
파급 효과	생산 유발효과	충남지역(홍성군)	1,153
		기타지역	706
		전국	1,859
	부가가치 유발효과	충남지역(홍성군)	490
		기타지역	271
		전국	761
	고용 유발효과	충남지역(홍성군)	680
		기타지역	371
		전국	1,051

주 : 시설 건설 기간 발생하는 지역경제 효과임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기대효과

3. 지역경제 파급효과

• 시설 건립 후 운영에 따른 효과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투자금액(지출금액)			6.6
파급 효과	생산 유발효과	충남지역(홍성군)	10.0
		기타지역	3.6
		전국	13.6
	부가가치 유발효과	충남지역(홍성군)	3.4
		기타지역	1.5
		전국	4.9
	고용 유발효과	충남지역(홍성군)	11
		기타지역	3
		전국	14

주 : 매년 소비지출로 발생하는 지역경제 효과임

결론

- ‘충남에만 지역방송국이 없으니 설립이 필요하다’는 기계적 형평성 차원에서 벗어나
충남도민의 실질적 피해와 지역방송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방송 뉴스의 내용분석,
지역방송 이해당사자 심층인터뷰 수행
- 충남에 관한 지역방송 뉴스가 양적, 질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전에 비해 주변화
- 심층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이 확대된 방송환경에서도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기여
하는 지역방송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

결론

- 텔레비전의 우월한 신뢰성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KBS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충남도민의 방송주권 회복 및 공영방송의 책무성,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해 충남에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필요
- KBS는 충남에 KBS 복합방송시설을 설립하여 충남도민의 방송주권을 회복시키고, 지역성
을 구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방송법에서 규정한 KBS의 공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강화할 책무가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문

KBS 복합방송시설 조기건립 추진과 충청남도의 노력및 대응방안

장진원 (충청남도 공보관)

KBS 복합방송시설 조기 건립 추진

【2023.9.22. 충청남도 공보관 장진원】

□ KBS 복합방송시설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방송주권 확립) '04년 KBS 공주방송국 폐국* 후 20여년간 방송국 부재, '11년 내포신도시에 부지 계약 체결 후 나대지로 지속 방치
 - 도 단위에서 KBS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인구 규모, 수신료 납부액을 비교할 때 불합리한 처우
 - 방송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KBS는 지역별로 차별 없는 방송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방송주권 침해
- ※ '03년 감사원에서 KBS 감사 시 경영방만을 이유로 KBS 지역방송국 단계적 통합안 주문, 이후 공주, 군산, 남원, 속초, 여수, 영월, 태백방송국 폐쇄
- (재난방송 부재) KBS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 각종 재해·재난, 대형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처 곤란으로 도민 피해 심화
- ※ '23년 홍성 산불 시 대전에서 동시 산불 발생에 따른 방송력 분산으로 산불 피해 대비 여론 환기에 한계, 부여·청양 집중 폭우에 따른 피해 시도 유사
- (지역 공론의 장) 지역 이슈와 담론을 도민께 올바르게 전달하여 숙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지역 공론의 장 마련이 절실
- (앵커기관 유치) KBS 지역방송국은 지속적 존폐 기로에 놓이는 상황, KBS 인재개발원 유치를 통해 항구적 방송시설 건립 필요

□ 그동안 충남도의 노력

- (건립 촉구) BH·국회·방통위·KBS 대상 지속 건립 촉구(~현재)
 - (범도민 서명운동) 서명운동추진('20.11~12./41만명), 서명부 전달(BH·국회 등)
 - (도의원 릴레이 1인 시위) 결의안 채택, 도의원 릴레이 시위 추진('20.)
- ⇒ KBS 전향적 자세 도출, 지역신청사프로젝트팀 설치(現 지역신청사추진단) 및 KBS

예산에 KBS 복합방송시설 설립 타당성 조사비 반영 등

- (1시도 1방송국 원칙 확립) '23. 3월 'KBS 2040' 비전 선포 시 現 김의철 사장이 '1시도 1방송국'으로 지역 거점 재편방향 발표
- (KBS 로드맵 도출) '23. 4월 KBS 관계자로부터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방향 및 추진 로드맵* 구두 보고(도지사-KBS 관계자)
 - * '22. 12월 도지사-KBS 사장 면담 시 '건립 로드맵'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
- (지상파방송 부재 해소) 지휘부 총력 대응을 통해 '22. 8월 방통위에 개국 허가 신청 후 장기 보류된 '충남 교통방송국'의 허가 성과 도출
 - 개국허가 지연 시 금년도 국비 반납 및 사업 좌초 우려 해소
 - '25. 2월부터 재난·재해와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정보 제공* 가능
 - * TBN은 방통위 방송평가 재난부문 평가 시 전체 165개 라디오채널 중 1위 매체

□ 현재 KBS 관련 상황

- (수신료 분리징수) '23. 10월부터 KBS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 시 수신료 수입이 연간 6,274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 이상 감소 예상
 - ※ KBS는 비상경영 선포('23. 7.) 후 사업 재검토, 신규 사업 중단, 예산 긴축 운영 중
- (KBS 사장 교체) KBS 이사회에서 現 사장 해임 후 신임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으로 그간 우호적이었던 KBS 측의 입장 변화 우려
- (정부·여당 입장) KBS 기구·인력 효율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 및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KBS 민영화, 2TV 폐지 등 다각도 검토
 - * 지역방송국은 자체 재원이 적어 본사 자원보전 의존 및 조직 비대화 원인이란 인식

□ 앞으로, 충남방송국 설립을 위한 우리도 대응 방안

- (정치권 공조) 대통령실, 과방위, 지역 국회의원을 용 KBS 복합 방송시설 조기 건립에 대한 도민 열망 전달 및 적극 지원요청
- (업무협약 추진) 도지사-KBS 신임 사장 면담 추진, KBS 복합방송 시설 건립 가속화 및 확행을 위한 도-KBS 업무협약 체결